



Sandbox, 2022. Oil and oil pastel on canvas. 130.3 x 194 cm | 51 5/16 x 76 3/8 in. ©2022 ob/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ob**  
*Miniature Garden*  
Perrotin Samcheong

October 6 - November 19, 2022

Perrotin Samcheong is pleased to present Japanese artist ob. After her solo exhibition in Perrotin New York last year, *Miniature Garden* is the first solo presentation in Korea. Comprising fifteen drawings on paper and ten works on canvas, *Miniature Garden* explores the complex structure of emotion and leads to the personal world like a garden.

*"Garden" in this exhibition is conceptual. I began to think that the act of creating a personal world away from everyday life could itself be like a garden. I hold a feeling that I want individual stories to be valued, no matter what the social circumstances are.*

- ob

The Sense of Emptiness: Against the Hostility toward the World

The term "affect" refers to the non/specific emotions to which an individual is subject due to the discords between him/her and the world that is assumed as existing outside her/his mind. Most individuals do not tend to take those affects as mediums to overcome their discords with the world. Being paralyzed by them, they search for ways to evade such a state. Maybe, here lies the nature of expressionism. The "exaggerated content" of expressionism is, in fact,

**ob**  
*Miniature Garden*  
페로탕 삼청

2022년 10월 6일 - 11월 19일

페로탕 삼청은 일본 작가 ob의 개인전 《Miniature Garden》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년 페로탕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 이어 갤러리가 개최하는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자 한국에서의 첫 전시다. 드로잉 15점과 캔버스 회화 10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복합적인 감정의 구조를 탐구함과 동시에 정원으로 은유되는 개인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이끈다.

이번 전시에서의 '정원'은 개념적 의미의 정원이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세계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정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환경과는 상관 없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 ob

「공허의 감수성: 세계에 대한 적대를 거부하며」

정동(情動)이란, 개인과 그것의 외부에 있다고 상정된 세계 사이의 의도치 않은 불화를 발단으로 삼아, 개인을 엄습하는 불/특정한 감정의 형식에 가깝다. 그리고 개인은 정동을 매개로 세계와의 불화를 해결하는 대신, 대개 정동에 압도당한 채, 그러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이는 어쩌면 표현주의의 본질이다. 즉 표현주의가 고수하는 '과장된 내용'은, 사실상 세계 자체와는 무관하게, 세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감정적으로



*Origamis on the Table*, 2022. Colored pencil and soft pastel on paper. Unframed: 28.3 x 21 cm | 11 1/8 x 8 1/4 in. Framed : 37.5 x 30 x 3 cm | 14 3/4 x 11 13/16 x 1 3/16 in. ©2022 ob/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Memory Trail*, 2022. Oil on canvas. 162 x 112 cm | 63 3/4 x 44 1/8 in. ©2022 ob/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irrelevant to the world itself, the product of the emotional discharge of a kind of trauma with the world. Contrarily, girls, which frequent the paintings of ob, calmly occupy the “world” beyond the frame without exaggerating themselves.

The “world” beyond the frame is so stable and peaceful that it seems to be isolated from the world we reside. Nevertheless, there exist signs of discord. In a world where no discord has survived, an individual no longer questions his/her existence. In other words, the girls in the works have lost their capacity to define themselves as a subject. Having resigned to the “world,” in this sense, they de-constitute their being as an entity that can create discord with the world.

The series of works repetitively embodies the “world” where an individual or the subjectivity that is held by him/her is nullified. *Miniature Garden* features this attempt of the artist. As one can infer from the title, the artist invites different individuals to the space of a “garden.” They are not capable of engaging with time autonomously. They are having—in audible—talks, collecting things, or lolling against the table or back on the bed, as part of the landscapes dimly painted in pastel tones. The ‘garden’ functions as a sort of conceptual category to accommodate such a stagnant time and enables those individuals within it to be kept on the verge of their disappearance into the “world.”

What the act of tending the “garden” signifies is the construction of a new origin for the individuals in the works.

*To me, a garden is a place where you can create a personal world away from reality.*

*The recent works I created that come to my mind are children's literature such as, "Tom's Midnight Garden," and "The Secret Garden." The revitalisation of a dilapidated garden with your own hands, the encounters and the interactions there with others are what depict the growth of a person's mind through the enclosure of a garden within these artworks.*

분출한 결과다. 반면 ob의 회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녀들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은 채, 그저 프레임 너머의 ‘세계’를 무던하게 점유하고 있다.

프레임 너머의 ‘세계’는 때때로 지나치게 정적이고, 온화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하는 외부의 세계로부터 격리돼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 불화의 징후가 존재한다. 즉 모든 불화가 종식된 듯한 세계에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실존을 의문시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작중의 소녀들은 자신을 주체로 규정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계’와 융화한 채, 세계와의 불화를 빚어낼 만한 여지가 있는 자신의 존재를 희석시킨다.

결국 일련의 작업들은 기억을 계속 은폐하기 위해, 개인 혹은 그것이 담보하고 있는 주체성이 무화된 ‘세계’를 반복해서 구현한다. 이번 개인전 《Miniature Garden》은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작가는 ‘정원’이라는 공간을 상정한 채, 그곳으로 각기 다른 개인들을 불러 모은다. 그들에게 주체적으로 시간을 견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파스텔 톤으로 흐릿하게 채색된 풍경의 일부로서, 서로 (들리지 않는) 사담을 나누거나, 무언가를 채집하거나, 어딘가에 늘어져 있을 뿐이다. 결국 ‘정원’은 그런 식으로 정제된 시간을 포괄하기 위한 일종의 개념적인 범주로 기능하면서, 그곳에 가담한 개인들이 ‘세계’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한다.

‘정원’을 가꾸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작중의 개인을 위한 새로운 기원(起源)을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에게 있어 정원은 현실에서 벗어나 개인의 세계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의 근작들은 소설 <Tom's Midnight Garden>이나 <The Secret Garden>과 같은 아동문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황폐해진 정원을 직접 되살리듯, 작품 속 정원의 율타리 안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성장을 이룬다.

The form of growth narrative—popular in the boy's comics—is a continuation of dramatic events through which an individual surmounts affects,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series is perhaps a means by which they intends to defy such a kind of narrative. Challenging it would not dissolve the discords with the world, and it makes an individual enter the “world” and thus forces him/her to participate in the infinite process of negotiation between him/herself and the world. The vague bodily communications of the figures—for example, their consistent nonchalant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s of rooms or tables that have been produced by themselves—are evocative of the emptiness that gradually reveals itself in the endless course of mediation. Yet it is the artist's way of trying to unify individuals via emptiness rather than a belated negation of the “world.” Together, they are savoring emptiness in each different moment realized in the dimension of the frame.

The show facilitates one to reckon the sense of emptiness generated in such a process. The sense of the empty distributes among us an individual's volition not to be bitter about the world anymore, increasingly tempting us to the world beyond the frame.

Siwoo Kwon, Art Critics

*The characters are like a vessel [container], and their meaning is brought forth by the presence of the viewer. I believe that the mechanism of “seeing because of being seen” draws empathy from the viewer.*

- ob

## **About the artist**

Born in Kagoshima, Japan  
Lives and works in Saitama, Japan

Born in 1992, ob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many artists who emerged as part of Japan's SNS generation in 2010. As a university student in Kyoto, she organized and curated several local exhibitions after reaching out to other artists her age through the illustration communication service pixiv. This culminated in the exhibition “wassyoï” for which she received much attention and acclaim. The name “wassyoï” itself stems from the chant used by revelers in Japanese street festivals. As part of the new generation of artists who grew up in an environment where video games and social media have always been part of daily life, she explores the dreamy filter of the feminine psyche through the recurring motif of a wide-eyed young girl in her delicate, atmospheric paintings. ob has been featured numerous times in art fairs overseas.

##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

애초에 (소년 만화에서 통용되는) 성장-서사는 개인이 정동을 극복하기 위한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며, 어쩌면 작가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그러한 서사를 위반하고 있다. 물론 후자는 세계와의 불화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이 ‘세계’ 속으로 침잠해 가면서, 자신과 세계 사이를 영원히 중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끔 만든다. 그러므로 작중의 개인들이 취하고 있는 모호한 제스처, 이를테면 자신이 방 안이나 탁자 위에 부러 놓은 상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영원한 중재의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는 공허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를 뒤늦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공허를 매개로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방식에 가깝다. 즉 그들은 프레임 차원에서 구현된 각기 다른 순간들 속에서, 공허를 함께 만끽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시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허의 감수성을 가능하게끔 유도한다. 그리고 공허의 감수성은 더 이상 세계와 적대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유포하면서, 우리를 점차 프레임 너머의 세계로 회유한다.

- 권시우, 미술비평 -

작품 속 캐릭터들은 선박(컨테이너)과 같으며, 그 의미는 보는 사람의 존재에 의해 나타난다. “보여지기 때문에 보인다”는 메커니즘이 보는 이들의 공감을 이끈다 믿는다.

- ob

일본 가고시마 출생  
일본 사이타마 거주 및 작업

1992년생 ob는 2010년 일본 SNS 세대와 함께 부상한 여러 작가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교토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일러스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pixiv를 통해 또래의 다른 작가들과 연락을 취한 후 몇 차례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ob의 이런 시도는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은 《wassyoï》라는 전시에서 정점에 다다랐는데, 전시명 《wassyoï》는 일본에서 길거리 페스티벌이 열리면 흥겨운 취객들이 외치는 구호에서 비롯되었다.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가 일상인 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 작가 ob는 섬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띤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큰눈의 소녀를 통해 여성 정신세계의 몽환적 필터를 탐구한다. ob는 다수의 해외 아트 페어에 참여했다.